

오 상 룡
(응용연구실)

필자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국 杭州(항조우)에서 개최된 국제차문화절, 차와 건강·문화 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침출액의 성분함량과 한국산 녹차잎 최적침출조건”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이하 동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면서 느낀점과 방문 기관들의 현황에 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I. 우리나라의 명칭

하늘에는 극락이 있고, 땅에는 蘇州와 杭州가 있다(上有天堂 下有蘇杭)는 바로 그 蘇州를 거쳐서 杭州로 오는 버스 안에서 필자는 지난 79년 1년간 살았던 네덜란드에 온 것 같은 착각을 한 것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시원하게 뚫린 길, 아름답게 가꾸어진 가로수, 곳곳에 흐르는 물,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것까지 그렇게 닮았다. 화란에서와 다른 점을 굳이 말하자면 자전거용 전용도로와 전용 신호등이 없는 것을 들 수 있다. 겉으로 보는 세계는 이렇게 비슷하데 내면세계는 어떻게 하고 생각했다.

도착한 黃龍飯店(홍룡에서는 큰 호텔을 酒店으로 표시하지만 중국에서는 飯店이라고 함)은 별이 4개나 되는 고급호텔이었다. 현관, 로비, 분수 등 모든 것이 중국에 온 것이 아니라 서양의 어느 호텔에 도착한 기분이 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기분과는 반대로 행사프로그램을 보니 우리 나라의 국호가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남조선이라고 쓰여 있었다. 필자의 논문발표 제목도 초청장에는 분명히 韓國產綠茶...이었는데 朝鮮綠茶...로 표기되어 있을 뿐 아

니라 연구소의 명칭도 南朝鮮食品開發研究院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섭식한 기분이 들었다. 떠나기 전 교육시간에 강사가 한 말이 생각났다. 우리는 전체 대표인 용운스님을 통하여 조직위원회에 정식으로

항의를 하였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 명칭이 바로 잡아 지지 않는다면 모두 불참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밤사이에 중국인민정부 외교부와 연락하여 ‘한국’으로 모든 인쇄물을 바꾸어 주기로 약속받았다. 일부에서는 대한민국, 혹은 앞으로는 절대로 남조선이란 단어를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남조선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은 많은 진전이며 이렇게 한발자욱씩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여 그선에서 수락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나라 참석 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II. 학술토론회 및 관련행사

개막식으로 들어 가는 입구의 길가에는 유치원 혹은 국민학교 저학년의 재롱스러운 춤과 악대들의 연주가 있었다.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안내원은 당고위간부가 아니면 이러한 환영은 못받는다고 말하며 여러분 모두가 당간부 이상의 귀빈이라고 상당히 상기된 어조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감격할 정도는 아니었다.

개회식은 간단하게 끝났고 이어서 중국차엽박물관 개관테이프 절단식이 있었다. 다음날인 25일은 학술발표가 시작되는 날이었다. 아침 8시 10분에 차가 오겠다고 전날 밤 10시에 연락을 받았으나 차는 30분이 늦은 8시 40분에 왔고 개회식은 8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던 것이 9시가 조금 넘어서 시작되었다.

이 회의가 개최된 장소는(아태지역소수전중심강당)는 아마 杭州에서 시설이 가장 잘 된 곳이 아닌가 싶다. 60~70명이 참석할 수 있는 회의실이지만 환등기와 투영기를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린과 동시통역이 이루어지면 각자의 필요한 언어로 채널을 맞추어 들을 수 있는 FM수신기가 개인별로 주어져 있다.

중국어로 발표하는 내용의 한국어 통역은 아주 잘 되었지만 일본어로 발표하는 내용의 한국어 통역은 원고를 미리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전을 면치 못한 감이 들었다.

좌장은 첫날 오전은 일본사람이, 오후에는 중국 사람이, 그리고 다음날엔 종합토론까지 한국 사람이 맡았다.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하면 동시 통역이 이루어졌다. 79년부터 여러가지 국제 학술회의에 참가하였지만 이번처럼 한국어로 발표하고 한국어로 좌장을 보고 할수 있는 적이 없어 기뻐다. 이것이 바로 국력이 아닌가 생각했다. 학술토론회에 참석한 대표 명단에는 주체국인 중국36명, 대한민국5명, 일본4명 모두 50명이었으며 논문 요약집에는 27권의 논문초록이 실려 있었으나 실제 16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중국 9편, 대한민국이 4편, 일본 3편이 발표되고(표1참조) 중국측은 11건이 발표되지 않았다. 종합토론은 토론이러기 보다 발표하지 않고 동참한 중국 분들의 각자 자기네들이 한 일의 자랑이었다.

사실 필자가 떠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들의 연구 목표가 단순히 어떤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바꾸어 말하면 과학적인 측면의 기초연구보다는 차로부터 약을 개발하는 등 응용연구를 많이 하는 편이었다.

폐회는 종합토론에 이어서 학술위원회 위원장의 짙막한 인사로, 내년 제2회 학술토론회를 湖南省岳陽(우에양)에서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개최하기로 하고 끝났다.

또한 浙江 전람회장에서는 “茶風情苑”이란 제목으로 여러가지 차, 차도구, 차제조기계 등의 전시회가 있었다. 행다의 표현은 5개국 16팀이 참가하였으나 필자는 같이 동행한 초암다회팀의 그 아름다운 의상과 조용하고 부드러운 행다표현을 참관하고 이와는 아주 대조적인 四川省(쓰촨성)의 한손에 그릇을 한꺼번에 움켜쥐고 던지듯이 잔을 펴고 차는 물론이고 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철철 넘치도록 부어서 마시는 행다표현을 참관하면서 우리는 양반이고 저기는 돌상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로 격이 없는 차생활이라고 생각하였다.(표2 참조)

저녁에는 香格里(상제리)호텔에서 만찬이 있었다. 초청장에는 좌석번호가 쓰여져 있었는데 우리 일행 12명은 2개의 테이블로 나누어졌다. 필자가 앉은 20번 테이블을 찾아가니 아주 잘 생긴 미남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浙江省 경공업청 부청장이었다. 그 옆에 필자의 이름이 정자로 쓰여 있었다. 중국에서는 간자를 쓰기 때문에 정자로 쓰여진 이름은 초청장과 여기 좌석표시로 써 놓은 것 밖에 보지 못했다. 자리에 앉아 있으니 술을 권한다. 나는 그 술을 받고 나서 그 술병을 다시 보자고 하였다. 직업의식이 나온 것이다. 참쌀과 밀로 빚은 술로 당도 2%, 주도 18%였다. 마음 속으로 우리의 청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다. 우선 주도에서 안심이 되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반주로 나오는 것을 보면 보통 52-56%였고, 또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70%의 술을 마시고 고생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우리 테이블의 호스트 자격으로 앉은 부청장은 내가 술에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서툰 영어와 한자를 써가면서 술에 관해 설명해 주었다. 이 술은 紹興酒(사오싱지우)로 연회때 마시는 술이라는 것과 별명이 女兒酒라고 하였다. 이유인즉 딸이커서 시집갈때 결혼식 피로연에서 반드시 이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고 한다. 라벨에는 加飯酒(지아판지우)라고 쓰여있는 데 왜 紹興酒나고 하였더니 생산되는 지방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였다. 21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된 최고급 술이라고 자랑하였다. 약간의 곡내(누룩냄새)가 있으며 맛이 좋았다. 음식은 기대했던 것보다 못했다. 내가 아마 너무 기대를 했던가 보다. 다만 河鱈이라는 뱀장어 요리가 맛이 있었다.

Ⅲ. 방문기관

1. 절강성 양식과학 연구소

가. 소재지 및 연락처

杭州市 文三路 24號(우편번호 310012)

전 화 : 88-8781

나. 설립목적

1957년 곡류, 식용유 및 그 생산 부산물의 이용극대화를 위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문제의 해결

다. 조 직

110명의 연구원을 포함하여 23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에서는 주로 연구업무를 하고 20km 떨어진 곳에 시제공장이 있다고 하나 방문하지 못하였음

1) 연구실

○ 곡류저장 연구실 : 곡물의 적정저장 기술과 충해방지에 주력함

○ 식품연구실 : 곡류를 이용한 개발제품, 전분,

단백질 등에 관해 연구함

- 곡류가공 및 기계연구실 : 곡류의 가공기술 특히 기계개발에 주력함
- 유지화학연구실 : 식용유지의 생산기술과 활용 기술에 대해 연구
- Q.C. station : 절강성에서 생산되는 곡류에 대한 미생물학적, 화학적 분석 및 규격규정에 대한 종합관리

2) 시제공장

연구과제에 대한 실증시험은 물론이고 이 연구소가 중점을 두고 있는 유지로부터의 제품을 직접 생산 담당

라. 주요 연구활동

- 주로 곡물의 장기저장을 위한 연구, 미강의 이용, 특히 미강유에 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UNDP/FAO와 공동으로 쌀가공 연구를 수행중에 있음

1) 유지부문

- 미강유에서 만든 향산화제에 관한 연구
- 야생식물 기름의 성분과 이용방안
- 비타민이 유지에 대한 향산화성

2) 식량저장 부문

- 벼의 황변자 특성
- 해충, 나방의 제거방법 연구
- 살충제의 싱출효과 연구

3) 기계부문

- 곡물건조기
- 창고용 분무기
- 기름짜는 기계

2. 중국 농업과학원 다업연구소

가. 소재지 및 연락처

杭州市 云棲路 1號

전 화 : 6-1824

나. 설립목적

차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를 통한 품질향상과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 (1985년)

다. 설 립

연구원 130명을 포함 2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8개분야 연구실 및 15ha의 재배포장을 갖고 있다.

1) 재배연구실

- 수율, 식물영양, 토양 등 재배와 관련된 사항연구

2) 육종 연구실

- 새로운 품종의 육종 및 개량에 관해 연구

3) 제다연구실

- 차의 종류별 표준가공공정 등 차 제조에 관한 연구

4) 식물보호 연구실

- 화학적, 생리학적 병리의 방제 및 농약의 방제 잔유물 등을 연구

5) 생리화학연구실

- 차의 생리활성물질의 분리, 동정, 특성상에 관한 연구

6) 기계연구실

- 수확 제다 등 새로운 기계를 연구

7) 종합 연구실

- 차의 활용 및 새로운 제품에 관한 연구

8) 정보연구실

- 중국차업, 차업과학등 정기 간행물을 발간

9) 주요활동

- 설립이후 100여개의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그중 36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종류의 우수연구 과제상을 획득 하였음
- 1982년부터 석사과정, 1987년부터 박사과정이 개설되었으며 일본, 영국, 미국, 태국, 스리랑카, 스위스 등과 과학자를 교류하고 있다.
- 1987년 처음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3. 중국차업 박물관

가. 소재지 및 연락처

杭州市 龍井路 變峰村

전 화 : 72-4221, 우편번호 : 310013

나. 개 황

- 22,000m² 대지위에 3,500m²의 건물을 자랑하는 본 박물관은 1991년 4월에 완성하여 이번 행사 기간중인 1991.5.24일에 개관을 하였다.
- 5개의 전시관에 1,500m²의 전시실을 자랑한다.
- 역사, 대구, 茶粹 茶事 및 누각 및 시음장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중국 학술발표에 참가하는데 너무 열중하다 보니 중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인 西安(시안)과 가장 아름다운 도시인 桂林(꾸이린)을 합하여 돌로 나눈 것과 같다는 곳이며, 당의 백낙천, 북송의 소동파가 관리를 지냈던 항주의 그 아름다운 경치들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어느 국제 행사든 학술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은 팀을 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게 마련이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리고 떠날 때 부터 가보기로 편지 연락까지 되어 있었던 절강성 양식연구소를 방문하는 대신 그 유명한 970년에 창건된 7층 탑(60m)인 六和塔(리우히타)과 아침에도 좋고 춘하추동 언제나 경치가 좋다는 西湖 유람은 하지 못하고, 겨우 20m높이의 석가모니불 좌상이 계신 靈隱寺(린인스)를 허겁지겁 다녀온 것이 못내 안타까웠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이 있어 야 다음에 한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